



서강대학교 뉴욕지구동문회  
SOGANG ALUMNI  
GREATER NEW YORK  
(SAGNY)

MAIL: 42 BROAD AVE, SUITE #5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655-1781, 917-400-9915  
EMAIL: [SOGANG.UNIVERSITY.ALUMNI@GMAIL.COM](mailto:SOGANG.UNIVERSITY.ALUMNI@GMAIL.COM)

발행일: 1994년 3월  
발행인: 조 광 용  
편집인: 송 국 법

# SOGANG PRIDE

한국 대학들은 최고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출처: 상기 도표는 무명의 인터넷 네이티즌이 대학별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재학생의 학습 및 연구능력의 평균적인 수준**을 보여주며 한국의 대학과 사회구조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생각과 판단기준에 따라서 순위는 무의미할 수도 있고 제한된 정보속에 작성된 위의 도표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현실에서 치열한 경쟁과 비방이 벌어지고 있고 경쟁에서 뒤쳐지면 그 명성과 자부심은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 2013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

순위	대학	총점(300점 만점)
1(2)	포스텍	233
2(1)	KAIST	229
3(5)	성균관대	225
4(6)	고려대(안암)	224
5(4)	서울대	217
5(3)	연세대(서울)	217
7(9)	한양대(서울)	215
8(7)	서강대	209
8(10)	중앙대(서울)	209
10(8)	경희대	208
11(11)	이화여대	188
12	한양대(ERICA)	179
13(13)	동국대(서울)	178
14(12)	인하대	176
15(16)	아주대	174
16(17)	건국대(서울)	173
17(14)	한국외대	172
18(19)	부산대	167
19(18)	경북대	164
19(14)	서울시립대	164
19(20)	전북대	164

\*공동 순위는 기관다순 \*괄호 안은 지난해 순위  
 \*분-교 통합 분위기 여부는 대학이 결정.  
 한양대 ERICA 캠퍼스는 올해 첫 평가

##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

순위	대학	총점(300점 만점)
1(1)	포스텍	239
2(2)	KAIST	232
3(3)	성균관대	231
4(4)	고려대(안암)	228
5(5)	서울대	223
6(5)	연세대(서울)	222
7(7)	한양대(서울)	219
8(8)	중앙대(서울)	218
9(10)	경희대	205
9(8)	서강대	205
11(13)	동국대(서울)	189
12(11)	이화여대	187
13(16)	건국대(서울)	179
14(19)	서울시립대	176
14(14)	인하대	176
16(15)	아주대	175
17(12)	한양대(ERICA)	172
18(18)	부산대	171
19(17)	한국외국어대	168
20(23)	서울과학기술대	166

\*공동 순위는 기관다순 \*괄호 안은 지난해 순위  
 \*분-교 통합 분위기 여부는 대학이 결정.  
 한양대 ERICA 캠퍼스는 올해 첫 평가

## 2015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

순위	대학	총점(400점)
1	서울대	302
2	성균관대	284
3	한양대(서울)	275
4	연세대(서울)	274
5	고려대(안암)	267
6	서강대	248
7	이화여대	247
	중앙대	237
8	한양대(ERICA)	237
10	서울시립대	235
11	경희대	232
12	부산대	231
13	인하대	230
14	한국외국어대	225
15	경북대	222
16	아주대	217
	전북대	217
18	충남대	216
19	동국대(서울)	215
20	전남대	212

\*종합순위는 인문·사회·자연·공학 등 4개 계열

이상을 갖춘 종합 4년제 80개대 대상 (포스텍·K  
 AIST 등은 계열 평가 대상)

## 2016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

순위	대학	총점(300점)
1(1)	서울대	240
2(3)	한양대(서울)	220
3(2)	성균관대	218
4(4)	연세대(서울)	205
5(5)	고려대(안암)	203
6(7)	이화여대	188
7(8)	중앙대	181
8(11)	경희대	178
8(8)	한양대(ERICA)	178
10(13)	인하대	177
10(14)	한국외국어대	177
12(6)	서강대	175
13(10)	서울시립대	172
13(16)	아주대	172
15(21)	건국대(서울)	163
16(12)	부산대	160
17(15)	경북대	158
17(19)	동국대(서울)	158
19(20)	전남대	156
19(16)	전북대	156

출처: 상기 도표는 삼성그룹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앙일보의 대학평가 결과입니다. 평가기준은 자주 바뀌는데 2016년 평가기준을 보면 교수연구 100점(국제학술지피인용 교수당연구비의 가중치가 큰데 국제학술지피인용 점수의 경우 국제학술논문을 많이 생산하는 의대 보유여부의 효과가 크게 작용\_삼성서울병원 생산 국제논문의 영향이 매우 큼), 교육여건 100점(교수학보율 장학금지급률 등록금대비교육비 교환학생비율 외국인학생교수비율의 가중치가 큰데 재정능력이 크게 작용\_삼성그룹은 10여년 전부터 MIT의 MBA 프로그램을 돈으로 사 성균관대 MBA에 이식한 만큼 삼성그룹 재정후원의 영향이 큼), 학생교육성과 70점(취업률 창업활동의 가중치가 큼), 평판도 30점(교교사 대학교수 기업인사담당자 여론조사\_삼성그룹 인사담당자의 영향이 큼 것으로 추정됨)으로 정량적 평가 위주이며 질적수준과 역량 및 입학성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평가: 입학성적에 기초한 대학 서열구조를 넘어 미국과 유럽의 대학평가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지표에 기초한 대학 자체 역량에 대한 평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가지표 조정 및 가중치 부여, 대학과의 커넥션을 통해 짜맞추기식 성균관대 1등 만들기에 몰두하는 중앙일보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실질적인 그룹사의 이익을 위해 언론의 도덕성과 정직성을 저버린 부도덕한 언론이며 그에 부응하는 성균관대 역시 부도덕한 기업형 대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10월 고려대 총학생회는 연세대 총학생회와 함께 중앙일보의 대학순위평가 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많은 성균관대 출신 및 그 관계자들은 위의 거짓된 순위를 근거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상위권 대학들을 비방하여 대학역량 수준을 왜곡하고 많은 학부모들과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서강의 동문들도 무관심과 무시로 넘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그룹이 지난 20년 간 연세대와 고려대를 넘기위해 전략적으로 삼은 첫 타겟이 서강대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년 간 서강대는 질적우위를 바탕으로 삼성그룹의 공격을 잘 방어한 측면이 있지만 유력 언론사의 대학평가에서 꾸준히 높은 순위를 받으면 입학성적으로 만들어진 대학서열 및 선호에 대한 기준관념도 바뀔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예수회 한국관구는 서강대가 질적으로는 우수한 대학일지라도 양적인 면에서 타 대학들과 불리한 경쟁을 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상업적인 대학들의 행태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정량적 기초를 더욱 강화하여 규모의 경쟁도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중앙일보의 부도덕한 평가를 극복하고 다른 국제평가에서 당당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국제평가들도 본질적으로 양적평가에 의존한 마케팅 요소가 크게 내재돼 있고 구성원들의 질적수준과 역량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과 미국과 서유럽 중심의 왜곡된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1960년 4월 개교한 이래 서강대학교는 가톨릭 예수회의 엘리트 교육 이념과 미국의 선진 대학교육 시스템 적용, 예수회 위스콘신 관구의 재정적 후원, 우수한 교수진과 우수한 학생 유치, 서강학파라고 칭하는 70~80년대 박정희·전두환 정부에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서강대 경제학 교수 출신들의 관료 집단(남덕우 전 국무총리, 이승윤 경제 부총리, 김만제 경제 부총리,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의 활약 등을 발판으로 단기간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와 경쟁하는 종합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서강대보다 개교가 빠르고 규모가 큰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와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특히 삼성그룹이 성균관대 재단을 인수한 시점부터는 대학의 지형이 변화할 정도로 파급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삼성그룹의 재정적 후원과 실질적 그룹사인 중앙일보의 평가지표를 활용한 작위적인 성균관대 1등 만들기 대학평가 발표, 삼성그룹의 광고주로서의 언론 컨트롤과 정치적 커넥션(삼성그룹의 공익재단의 자금후원을 활용한 사회 정치적 영향력 행사 및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한 최순실 로비 등)을 이용한 성균관대 1등 만들기 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태평성대라 칭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들어 주요 은행 행장 등 고위 금융권 인사, 국무총리 등을 비롯한 고위직에 연세대·고려대·서강대를 크게 압도하여 성균관대 출신이 중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고착화된 신분적 대학서열이 실력과 경쟁이라는 상황으로 바뀐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서강대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고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학교재정은 7년째 적자이고 적립금은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전임 이종욱 총장과 유시찬 이사장 및 김호연 총동문회장은 위기의식 속에 서강대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남양주 캠퍼스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의 중심인 서울 강남 및 판교와 가까운 남양주 캠퍼스를 서강대의 연구 및 융합, 산학협력의 중심으로 만들어 서강의 실력에 걸맞는 양적 토대와 질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이공계 전공에 있어서 연구부지와 실험 기자재 및 산학협력 사업은 더욱 절실하지만 협소한 신촌 캠퍼스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문 기업가들도 같은 이유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공계의 발전에 많은 제약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 9월 임명된 예수회 한국관구장 정제천 신부는 예수회 한국관구가 서강대 운영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생각 및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할 경우 한국관구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감, 뒤늦은 재정적인 염려를 가지고 총장 및 총동문회가 주도하고 있는 산학협력형 남양주 캠퍼스 사업의 진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회 한국관구가 최소한의 리더십이나 재정조달능력 없이 염려와 기도만 하면서 계속 서강대의 경영을 주도한다면 서강대의 재정적 위기와 외부 경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은 그 어느때보다도 서강의 총동문들이 서강의 발전을 위해 단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호연 빙그레 회장, 이상웅 세방그룹 회장,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회장 등 재력을 가진 동문들도 적극 참여하여 남양주 캠퍼스 사업의 성공을 바라고 있고 일부는 상당한 액수의 기부약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남양주 캠퍼스 사업의 소요 자금(1,814억원)은 현재 남양주도시공사의 사업부지 등 제공(500억원 \* 한국관구에서는 남양주시의 법적효력 있는 확약서를 받고자 하나 남양주시는 어렵다는 입장) 및 산학협력기금(100억원), 동문들의 기부약정(334억원) 등으로 조달될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부족한 자금은 동문들의 추가 참여와 산학협력사업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문회가 바라는 것은 첫째 서강대 지배구조에 역량 있는 동문 및 사회적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예수회와 함께 단합하여 서강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예수회도 기득권은 영원한 것임이 아님을 알고 그 힘을 일부 내려놓고 함께 개혁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조지타운(40명 이사중 예수회 신부 7명 동문 28명), 보스턴칼리지(52명 이사중 예수회 신부 5명) 등 많은 예수회 대학과 연세대(12명 이사중 기독교계 4명 동문 4명 개방이사 3명 총장 1명) 등 종교계열 대학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둘째 지난 8년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진행해온 남양주 캠퍼스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8년전부터 이사회 및 예수회 한국관구는 남양주 캠퍼스 사업을 검토하고 진행시켜 왔습니다. 예수회 한국관구의 관구장 및 주도 신부그룹이 교체되었다고 하여 장기적인 학교사업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힘을 모아 학교 발전을 위해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만들어 실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 <주요 진행 사항>

2008년 06월 20일: 서강대 유시찬 신부 이사장 취임

2008년 09월 01일: 예수회 신원식 신부 한국관구장 취임

2009년 06월 29일: 서강대 이종욱 총장 취임

2004년 ~ 2013년: 서강대 김호연 빙그레 회장 총동문회장 연임(빙그레 본사 남양주시 소재)

2010년 02월 17일: 서강대·남양주시 남양주 캠퍼스 조성 MOU 체결

2013년 03월 01일: 서강대 유기풍 총장 취임

2013년 04월 18일: 서강대 김정택 신부 이사장 취임

2013년 07월 19일: 서강대 이사회 기본협약 체결 승인

2013년 07월 25일: 서강대·남양주시 기본협약 체결

2014년 09월 01일: 예수회 정제천 신부 한국관구장 취임

2014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 남양주 양정역세권 사업부지내 개발제한구역 서강대  
캠퍼스 유치 조건부로 해제

2015년 12월 21일: 동문포럼 개최를 통해 남양주 발전기금 342억원 약정 받음

2016년 05월 19일: 서강대 김정택 신부 이사장 사임

2016년 05월 19일: 서강대 이사회 교육부 대학위치 일부이전(신촌 캠퍼스 → 남양주시)  
계획서 제출 안건 보류 => 남양주 캠퍼스 사업 중단

2016년 06월 01일: 서강대 이상웅 세방그룹 회장 총동문회장 취임

2016년 07월 15일: 서강대 이사회 교육부 대학위치 일부이전(신촌 캠퍼스 → 남양주시)  
계획서 제출 수정 안건 부결

2016년 08월 16일: 서강대 박문수 신부 이사장 취임

2016년 09월 12일: 유기풍 총장 예수회 니콜라스 총원장 신부에 탄원서 발송

\* 니콜라스 총원장 신부는 9월 20일 유기풍 총장의 뜻이 예수회 대학의  
가치와 꿈과 다르다며 청원을 배척함

2016년 09월 19일: 서강대 총학생회 주최 전체학생총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내(정원 12명)  
예수회 이사비율 축소(6명 -> 4명) 등 요구

2016년 09월 21일: 서강대 총학생회장 및 지식융합학부 학생회장 단식농성 시작

2016년 09월 22일: 서강대 총동문회 이사회 개혁을 위한 범 서강 서명운동 시작

2016년 09월 29일: 유기풍 총장 예수회 한국관구의 학교경영 퇴진 요구하며 사퇴

2016년 10월 13일: 서강대 이사회 이사회내(정원 12명) 예수회 이사비율 3분의 1로 축소 결의  
\* 다만 현재 예수회 이사수는 5명으로 줄었지만 일반이사 6명을 관구장  
추천 및 주변 인사들로 채움으로써 예수회 측에서 이사회를 완전 장악

2016년 10월 25일: 예수회 한국관구에서 예수회 박종구 신부를 총장으로 선임하고자 추진함에  
따라 서강대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동문대표 김창배(77 경영),  
장홍순(78 전자), 정은상(81 사학), 권혁빈(92 전자) 사퇴  
\* 총추위 구성: 예수회 4명, 교수 14명과 교직원 4명, 재학생 2명,  
동문대표 4명 총 28명

2016년 10월 28일: 서강대 총동문회는 제15대 총장 선출 일정을 재조정할 것과 총장초빙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냄

## 참조 1. <제15대 총장후보자 추천을 위한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동문 대표 사퇴 성명서>

존경하는 총추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총추위 동문 위원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총추위 활동을 하였으나 현실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대학간 치열한 무한경쟁으로 어느 대학도 미래에 존재 자체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4년은 서강대학교에 대단히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재정확보,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찬 4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10월 재단이사회에서 표면적으로 예수회 신부 이사의 숫자가 줄었지만 현실은 관구장 추천 및 주변 인력들로 포진해 오히려 이사회를 완전 장악해 버렸습니다.

또한 관구장이 언급한 ‘예수회 신부 총장론’이 각본대로 진행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재 총장 후보자 세 분은 이를 감당하기에 모두 부족하신 분으로 사료되는 바, 총추위 동문 위원들은 대내외적으로 역량 있는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총장 초빙 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총추위 동문 위원들은 총추위 활동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일괄 사퇴합니다.

마지막으로 서강대학교는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코 거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총추위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믿으며 사퇴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동문대표 4인 김창배, 장홍순, 정은상, 권혁빈

## 참조 2. <한국예수회의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이사회 지배와 차기 총장 선출 등 작금의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총동문회 성명서>

서강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이상웅)는 한국예수회의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이사회 지배와 차기 총장 선출 등 작금의 중차대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총장을 사실상 내정하고 진행되는 총장추천위원회는 무의미하다
2. 학교법인 이사회 개악(改惡)을 시정하고 혁신하라
3. 한국예수회원 교수 및 교직원의 특권적 채용 관행을 시정하라
4. 서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하라
5. 자랑스러운 재학생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의 뜻을 보낸다

### 1. 총장을 사실상 내정하고 진행되는 총장추천위원회는 무의미하다

작금의 모교 서강을 바라보는 많은 동문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인구 절벽으로 인하여 대학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존립 자체를 확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코앞이다. 이러한 도전적 환경에 놓인 서강대학교의 향후 4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생존을 위한 재정 확보, 중장기 발전계획수립과 추진 등 급박한 과제를 풀어나가기에도 벅찬 4년이다. 확실하게 검증된 유능한 총장 후보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과 이유를 감안하면, 현 총장 후보자 3인 외에 위기의 서강을 구하고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더욱 널리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총장추천위원회의 동문대표 위원들은, 역량 있는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총장초빙위원회를 구성·가동하고 관련 일정을 재조정할 것을 주장했지만, 무산되었다.

한국예수회 관구장은 이미 수개 월 전 ‘예수회가 차기 총장을 맡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관구장과 한국예수회의 뜻에 따라 총장이 사실상 내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학교법인 이사회를 한국예수회가 실질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이미 총장을 내정해 놓은 이상, 현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

이에 동문대표 추천위원 4인은 더 이상의 총장추천위원회 활동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10월 25일자로 일괄 사퇴하였다. 동문대표 4인은, 절차적 합법성 확보를 위한 요식 행위에 들러리가 되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 판단하였다. 총장을 사실상 내정하고 진행되는 총장추천위원회는 무의미하다.

### 2. 학교법인 이사회 개악(改惡)을 시정하고 혁신하라

현재 학교법인은 1000여명 학생들이 전체학생총회에서 결의한 이사회 개혁 요구를 사실상 외면했다. 총동문회가 10월 13일을 기한으로 촉구한 이사회 개혁안 역시 무시했다. 총동문회는 비전문성, 비민주성,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이사회 정상화’야말로, 새로운 서강 발전의 토대이자 시작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총동문회 및 학생들의 요구와 노력에 대한 학교법인 측의 대응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사진 11명 중 한국예수회 신부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임으로써, 곁보기에는 한국예수회원 숫자를 과반 아래로 낮추었다. 그러나 실제 인적 구성을 들여다보면 한국예수회 신부들의 고교·대학 동기동창 인사, 동향(同鄉) 인사, 한국예수회 추천 인사들로 채워졌다.

한국예수회원의 수적(數的) 비중을 줄이는 모양새를 취하는 대신, 실제로는 한국예수회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만 것이다. 이러한 개악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서강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에 총동문회는 이사회 개방을 비롯한 학교법인 이사회 구조 및 운영의 실질적인 개혁을 거듭 촉구한다.

한국예수회 수도자가 학교법인 이사회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관으로 규정하라는 총동문회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사립학교법 제21조는 이사 상호 간 민법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일사불란한 순명(順命) 원칙에 따른다고 알려진 예수회 신부들은 이사회에서도 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요컨대 친족의 경우보다도 이견을 용인하지 않는 한국예수회가 폐단을 낳을 가능성 이 오히려 더 크다.

### 3. 한국예수회원 교수 및 교직원의 특권적 채용 관행을 시정하라

현재 서강대학교에는 다수의 한국예수회원들이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다. 이들의 상당수가 공식적인 교수 정원 및 임용 절차와 무관하게 별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개경쟁을 배제한 예수회원 특별 채용 내규는 법률위반의 소지도 있다. 또한 한국예수회원 중 공개경쟁 없이 직원 등으로 채용된 사례가 있다면, 이 역시 불공정한 관행이다.

이상과 같은 불공정하며 불투명한 관행과 사례 등을 빠른 시일 안에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악화되는 학교 재정 구조 속에서도 한국예수회 소속 교수 및 직원들 인건비로 매년 20억원 정도의 교비가 지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특권적 채용 관행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 4. 서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하라

가야 할 방향을 궁리하지 않는 무책임한 리더십,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는 무능력. 이러한 무책임과 무능력 속에 서강은 목적지 없이 표류 중이다. 학교 발전에 대한 이사회와 무대책은 학생 간담회에서 재학생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반면 주요 대학들은 중장기적인 미래 발전 방안을 설정하여 힘 있게 추진 중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의 위상이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

실현 가능한 비전과 방향을 세워라.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현실화할 재정확충 계획도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비전과 방안 제시 없이 익숙한 관행에만 의존하려 한다면, 서강의 앞날은 어둡다.

### 5. 자랑스러운 재학생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의 뜻을 보낸다

총동문회는 학교 정상화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단식 농성을 통하여 표명해준 총학생회장을 비롯하여 전체학생총회, 시위, SNS 등 다양한 방식과 경로로 ‘행동하는 지성(知性)의 힘’을 보여준 많은 후배 재학생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의 뜻을 보낸다.

총동문회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재학생 후배들의 염원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도록 배전(倍前)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앞으로 후배들과 더욱 깊이 소통하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졸업 동문’인 선배 동문들이 ‘재학 동문’이라고 할 수 있는 후배 재학생들의 자부심의 이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깨어 있고 행동하는 후배들이야말로 서강의 밝은 미래다.

‘진리에 순종하라’(Obedire Veritati)는 서강의 자랑스러운 모토를 새삼 되새겨본다. 우리가 진정 순종해야 할 진리, 따를 수 있는 진리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진리가 아니다. 비판을 허락하지 않는 굳어버린 진리가 아니며, 소수가 다수에게 강제하는 진리가 아니다. 불통(不通)의 권위가 지배하는 허울뿐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진정 ‘자유케 하는 진리’(요한복음 8:32)이다.

우리가 따라야 하고 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진리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이해와 합의에 따라 찾아나가는 진리이다.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진리에 순종하라’는 명령의 참뜻이자 서강 정신의 중추라 믿는다. 총동문회는 마침내 진정한 진리가 서강에 깃드는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7만7000여 동문들의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다.

2016년 10월 28일  
서강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이상웅

## 가을 골프대회

By 이선희 골프회장



Birkshire Valley Golf Club, Oak Ridge, NJ

2016년 9월 17일 토요일, 서강 가족들이 Birkshire Valley Golf Club에서 가을 골프대회를 가졌습니다. 천고마비의 화창한 날씨 속에서 동문 및 가족들이 함께 단합하고 일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60학번대부터 80학번대까지 봄 골프대회 보다 많은 총 26명이 참석하였고 골프로 시작한 단합행사는 다래옥에서의 저녁식사 모임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영태 신임 골프회장(76 독문)

챔피언상은 정영태 동문, 남자부 1등은 주정림, 2등은 이규성, 3등은 문이준 동문이 수상하였고 Longest Drive는 이영, Closest to Pin은 임필재 동문이 수상하였습니다. 여자부 1등은 Mrs 정영태, 2등은 조문경 동문, 3등은 Mrs. 박주성, 4등은 Mrs 이영 가족이 수상하였습니다.

봄, 가을 골프대회에서 챔피언상을 수상한 정영태 동문(76 독문)이 새로운 골프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동문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일년 간 수고하신 이선희 골프회장과 장상태 경기위원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동문회비 및 기타 후원금

동문회비와 이사회비는 동문회 운영비와 장학금 적립, 동문의 경조사 지원에 쓰이고 기타 후원금은 장학금후원(재학생 해외연수 지원), 남양주발전기금, 일반 동문회 후원 비용으로 쓰입니다. 동문회비는 연간 \$60입니다. \$60 중 \$40는 동문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20는 장학금으로 적립합니다. 이사회비는 연간 \$200입니다. 동문회가 발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2016년에도 더 많은 동문이 회비납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의 회비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을 동문회 사무실(Payable to SAGNY, Mail to 42 Broad Avenue, Suite #5, Palisades Park, NJ 07650)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문회비 및 기타 후원금 납부명단(2016년 누적기준)

2016년 동문회비	2016년 이사회비	2016년 장학금후원
이병필(61 경제) \$60	이병필(61 경제) \$200	이종구(69 화학) \$500
윤규방(62 철학) \$60	송 진(64 경제) \$200	강신애(63 사학) \$100
박영학(64 영문) \$60	최도광(72 무역) \$200	이규성(73 물리) \$1,000
송 진(64 경제) \$60	전태원(75 외교) \$200	윤재진(73 신방) \$500
배화순(71 영문) \$60	조수진(60 영문) \$200	이종훈(80 경영) \$1,000
최승유(72 독문) \$60	원유봉(73 전자) \$200	김미란(84 정외) \$300
전미경(78 화학) \$60	윤재진(73 신방) \$200	이인경(86 영문) \$500
조광용(78 경영) \$60	이명수(79 영문) \$200	이명수(79 영문) \$500
정중화(80 정외) \$60		
곽정아(82 영문) \$60		
조수진(60 영문) \$60		
이완실(63 생명) \$60		
강신애(63 사학) \$60		
박민서(65 물리) \$60		
정재경(76 사학) \$60		
이종구(69 화학) \$60		
황인신(75 무역) \$60		
이명수(79 영문) \$60		
문이준(82 경제) \$60		

## 2016년 남양주발전기금

이병필(61 경제) \$240  
 송진(64 경제) \$40  
 배화순(71 영문) \$200  
 최도광(72 무역) \$300  
 정중화(80 정외) \$100  
 광정아(82 영문) \$40  
 이완실(63 생명) \$100  
 이영(73 경영) \$200  
 정재경(76 사학) \$200

## 2016년 일반후원

배화순(71 영문) \$40  
 이명수(79 영문) \$20

## 2016년 골프후원

박민서(65 물리) \$200  
 안병설(65 물리) \$100  
 임필재(67 생명) \$100  
 이규성(73 물리) \$200  
 이영(73 경영) \$200

## 2016 총회 및 송년모임 공지

- 일시: 12월 11일 일요일 PM 5:00 - PM 10:00
- 장소: Double Tree Hotel, Fort Lee, NJ 알림 사항

## 알림 사항

서강대 대 뉴욕동문회 소식지인 Sogang Pride는 분기마다 출간되며, 매년 첫 번째 소식지만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는 이메일로 배부합니다. 이메일 등 연락처 업데이트가 필요한 동문들은 동문회로 연락 바랍니다. Sogang Pride의 격조를 높여줄 동문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에 사는 서강 동문을 찾고 있습니다. 동문 사업을 웹사이트에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 뉴욕 웹사이트(<http://www.sogangnewyork.com>)에서 동문사업을 광고해 드립니다. 광고비는 연간 \$120입니다. 동문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Sogang Alumni Greater New York (SAGNY)

서강대학교 뉴욕지구동문회, Sogang Alumni  
 Greater New York (SAGNY)은 1984년부터 뉴욕지구 서강인과 함께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사장 : 최도광 (72 무역)  
 회장 : 조광용 (78 경영)

## 서강대학교 뉴욕지구동문회 (SAGNY) 연락처

Mail: 42 Broad Avenue, Suite #5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655-1781, 917-400-9915  
 Email: [sogang.university.alumni@gmail.com](mailto:sogang.university.alumni@gmail.com)  
 Website: <http://www.sogangnewyork.com>



## 동문회비 및 기타 후원금 납부서

\$60의 동문회비 또는 \$200의 이사회비와 여러분의 소정의 소중한 후원금을 동문회 사무실  
**(Payable to SAGNY, Mail to 42 Broad Avenue, Suite #5, Palisades Park, NJ 07650)**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서에 내용을 기재하시어 동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이름

영어이름

입학연도

전 공

납부금액      동문회비: \$ \_\_\_\_\_, 이사회비: \$ \_\_\_\_\_, 장학금후원: \$ \_\_\_\_\_

남양주발전기금: \$ \_\_\_\_\_, 일반후원: \$ \_\_\_\_\_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집 주소

회사 주소